

부정사의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 -문법화의 보편적인 통로로서의 목적에서 부정사로-

최종욱
(공주대학교)

Choi, Jong-Wook, (1997). A study of developmental process of infinitive : From purposive to infinitive — a universal path of grammaticizatio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3, 123~139.

This paper describes the evolution of the infinitive in terms of its progressive formal and semantic grammaticization, using the German infinitive as an example. It is shown that the infinitive has its diachronic origin in a nominal purposive form and that the grammaticization of a purposive form to an infinitive is a widespread phenomenon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This original function of the infinitive is important for understanding its nature, and the most interesting syntactic property of infinitive, the absence of an explicit subject, can be shown to follow from it.

Finally, this paper shows that the diachronic process of the grammaticization of a purposive form is even more general, occurring also in the case of purposive markers in finite clauses.

1. 서론

폭넓게 알려져있는 견해에 의하면, 부정사는 동사 어간의 의미에 첨가해서 그 자체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 동사의 기본적이고 최대로 무표화된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의 주격 단수와 같이 부정사는 동사의 기본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사전에 나타날 수 있는 표제어의 형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견해는

Jakobson의 1957년의 논문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또한 언어학 사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1) "Among all verbal forms, it is the infinitive which carries the minimal grammatical information. It says nothing either about the participants of the narrated event or about the relation of this event to other narrated events and to the speech event."
(Jakobson 1957:142)
- (2) "Infinitive: A traditional term for the non-finite form of the verb usually cited as its unmarked or base form, e.g. *go, walk, kick.*"
(Crystal 1985:157)
- (3) "Infinitive, auch Grundform oder Nennform: ursprünglich nominale Form des Verbs, die die Bedeutung des Verbs an sich, d.h. ohne formalen Ausdruck der verbalen Kategorien Person, Numerus, Modus und Tempus beseichnet, z.B. *gehen, schlafen, leuchten.*"
(Conrad(ed.) 1985:100)

부정사가 동사의 기본적인 형태로 언어학자들에 의해 흔히 간주되는 사실은 이 형태로 사전에서 동사를 등재하는 폭넓게 퍼져 있는 사전 편집의 관행에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극히 최근의 일이고, 결코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많은 언어들에서 상대적으로 무표화된 동사의 한정 형태(finite form)가 관습적으로 많은 사전들에서 사용되고 있다(라틴어와 그리스어에서 일인칭 단수 현재 또는 히브리어와 아랍어의 삼인칭 남성 단수 완료(the third person masculine singular of the Perfect)).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위의 인용문에 반영된 부정사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잘못이라는 점이 드러나게 되며, 위 인용문의 견해는 극히 제한된 정도로 정확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의 언어와 많은 비 유럽어에 나타나는 부정사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들 자신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부정사들의 이러한 의미와 형태 그리고 관계는 부정사가 통시적 측면에서 접근된다면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정사의 형태적 그리고 의미적 문법화(grammarization)의 발전 과정에 비추어서 이 부정사의 진화 과정은

예로써 독일어의 부정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정사는 통시적으로 살펴볼 때 기원을 명사적 목적 형태(nominal purposive form)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목적 형태에서 부정사로의 문법화는 세계의 언어들에서 하나의 폭넓은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부정사의 원래의 기능은 부정사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며, 가장 흥미 있는 부정사의 구문적 속성과 명시된 주어의 부재는 이 부정사의 원래의 기능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 형태의 문법화의 통시적 과정은 한정절의 목적표식 격에서 또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한층더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II. 부정사는 목적을 나타내는 행동 명사에서 유래

부정사가 결코 의미상으로 공(empty)이 아니라는 것은 몇 가지 예를 드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즉 다음의 (1)의 영어와 (2)의 독일어의 짝을 살펴보면, 여기서 서술어로서 보이는 부정사 아니면 한정 동사를 취하고 있다.

- (1) a. *Mary told Tom to write the article.*
 b. *Tom told Mary that he was writing the article.*
- (2) a. *Es ist wichtig für mich, das zu wissen.*
 'It is important for me to know that'.
 b. *Es ist wichtig für mich, dass ich das weiss.*
 'The fact that I know that is important for me'.

이들 경우에서 부정사는 명백하게 비사실적으로 기술되어질 수 있는 법의 의미(modal meaning)에 상응하는 직설법 한정동사의 형태와 구별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형태적으로 볼 때 부정사는 완전히 무표적(unmarked)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독일어에서 부정사는 -en, 러시아어에서는 -t, 라틴어에서는 -re 등을 어미로 지니고 있다. 독일어의 *zu* 에 상응하는 것으로 영어에서 불변화사로 나타나는 것은 한층더 현저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생성 문법에서 이 불변화사인 *to/zu*는 대개 두개의 추상적인 범주인 COMP 와 INFL 중의 하나에 배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말하자면 *the* 또는 *through*와 같은 어떤 다른 요소가 아니라 왜 *to* 인가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다. 형태와 기능간의 관계는 생성 문법에서 임의적인 것이다.

부정사가 다용도로 사용되는 영어의 *to*(독일어의 *zu*)와 동음이의적인 요소에 의해 유표화(marked)되고 있다는 것은 우연한 일치가 아니며 부정사의 법적인 의미와 전치사 *to/zu*의 동시다발적으로 다용도로 사용되는 의미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관성은 공시적(synchronic)인 면에서 포착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통시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이 두 가지는 물론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치 전치사(allative preposition)의 장소적 의미가 궁극에 부정사의 의미를 주게 되는 원래의 의미였던 것이다.

그 첫 단계는 장소를 나타내는 위치적 의미에서 목적의 의미로의 확장인 것이다. 이것은 다음 (3)에서 엿볼 수 있다.

- (3) a. *Mary went to Sabina's apartment.*
 b. *Mary went to take photos of Sabina.*
 c. *Mary bought a camera to take photos of Sabina.*

(3a)와 (3b)에서 *to*-구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3a)가 순수하게 장소적인데 반하여 (3b)는 목적을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목적적 의미는 (3c)에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서 행동은 본질적으로 방향 지시적인 것이 아니다.

고지 독일어(Old High German)는 아직도 이 원래의 상황에 아주 꽤 가까운 모습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고지 독일어의 위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 *zi*는 목적만을 표현하는 동사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Erdmann 1874:§ 351에 의하면 *zi*-부정사는 Otfrid의 *Liber evangeliouum*(라틴어에서 번역된 것이 아닌 고지 독일어의 가장 중요한 원본 문서 중의 하나)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목적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4) a. *er ward zi manne, be si si irsterbanne* (Otfrid V, 12, 27)
 he became to man with them to die '(Christ) became a man in order to die with them'.
 b. *biwunten sie nan mit lininemo sabane* wrapped they him
 linen shroud *thar tho zi bigrananne* there to bury (Otfrid IV, 35, 33)
 'They wrapped him in a linen shroud to bury him there'.

후에 *zi*-부정사는 수식어가 아닌 보어를 취하는 동사의 논항(argument)이 있는 맥락까지 확장된다. 이 용법은 Otfrid 에서 아직도 회귀하게 나타난다. 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5) *joh wer thih bitit thanne ouh hiar zi drinkanne* and who
thee asks now also have to drink (Otfrid II, 14, 24)
'And he who is asking you now here to drink' (i.e. for a drink)

현대 독일어의 *zu*-부정사에 상응하는 보어 절은 원형 부정사(bare infinitive) (6b)나 한정절(finite clause) (6a)에 의해 달리 표현되고 있다.

- (6) a. *manota er ouh the suntar thaz sie thaz firbarin*
admonished he also those especially that they that avoided
(Otfrid IV, 6, 41-42)
'And he admonished them especially to avoid that.'

- b. *joh ih biginne redinon, wio er bigonda* and I begin talkas
he began *bredigon* (Otfrid I, 2, 7) preach
'And I begin to talk, as he began to preach.'

보어절에서 *zu*-부정사는 중세 고지 독일어(Middle High German)와 특히 초기 신 고지 독일어(Early New High German)에서 더욱더 확산되었다. 이것은 다음의 인용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Die Verbindung von *zu* mit Inf., die ursprünglich der Bedeutung der Präposition *zu* entsprechend nur den Zweck bezeichnete, hat im Neuhochdeutschen eine immer ausgedehntere Verbreitung gefunden. Sie hat sich einerseits an die Stelle des einfachen Inf. eingedrängt, andererseits an die Stelle von abhängigen Sätzen." (Paul 1920:§ 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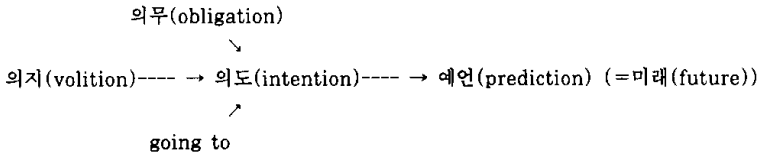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zu* (when it appears with the infinitive) developed from a very preposition-like morpheme to a very complementizer-like morpheme as it

wormed its way into more and more constructions where previously only the bare infinitive or finite clause complements had stood.” (Ebert 1970:81)

이러한 일련의 통시적 변화는 언어와 언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매우 일반적인 과정의 하나의 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III. 보편적 문법화의 통로로서 목적에서 부정사로

문법화의 잘 알려진 예가 의무, 의지 또는 이동의 동사로 부터의 미래 표시어의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로만스어의 미래는 라틴어의 *havere* 'have(to)', 영어의 *will*-미래는 고대영어의 *will* 'want' 그리고 더욱더 최근의 예는 영어의 *gonna*-미래 등에서 이러한 현상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발전은 유럽의 언어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다른 언어들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폭넓게 엿볼 수 있다(Bybee & Pagliuca 1987). 다음 <도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언어의 기원적 연관 또는 지역적 장소와는 독립적으로 어떠한 언어에서도 어느 때이든 이러한 문법화의 집중통로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 도표 1 > 미래의 의미적 문법화(*Semantic grammaticization of future*)

아주 똑같은 방식으로 목적 형태로부터의 부정사 같은 형태(비사실적 보어절에서 사용되는 동사 형태)의 진화는 독일어와 영어와 같은 서 게르만어(West Germanic language)들에 국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인구어 학자들은 고대 인구어들(ancient Indo-Eruopean languages)의 부정사(특히 라틴어, 그리스어, 고대 인도 이란어, 슬라브어, 하이티어)는 여격, 대격 또는 처격에서 동사적 명사(verbal noun)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식해 오고 있다(cf.

Jeffers 1975, Gippert 1978). 여격, 대격 그리고 처격은 고대 인구어에서 방향, 목표와 목적(goal and purpose)의 표현을 위해 사용되었던 바로 그 격들이었다. 왜냐하면 이 때에는 어떤 특별한 장소 및 방향을 나타내는 장소격(allative case)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대 인구어 중에서 로만어(라틴어에서는 *ad* 'to', *de* 'concerning'을 사용하고 있고, 스칸디나비언 게르만어에서는 *at*를 사용하고 있다)에서 유사한 형성을 발견하게 된다.

Fehling(1980)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목적 형태로부터 나온 부정사와 유사한 보어 형태의 세계적인 분포는 이 발전이 많은 곳에서 독립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유럽어의 단순한 공간적 특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IV. 독일어 *zu*-부정사의 문법화로서의 발전

독일어에 있어서 (다소간 명사적)목적의 *zu*-형태의 부정사로의 진화는 하나의 문법화 변화이다. C.Lehmann(1982, 1985)는 문법화(grammaticization)를 “어의소(lexemes)를 문법 형성소(grammatical formative)로 전환하고 문법 형성소를 더욱더 문법적으로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후반의 정의 부분은 부정사의 경우에 아주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정사는 문법화의 표준적인 예들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정사의 문법화의 예들은, 조동사가 상 표시어(aspect marker)로 바뀔 때와 같이, 우연적 구문(periphrastic construction)에서 굴절적 형태소(inflexional morpheme)로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차라리 부정사는 동사적 명사의 (목적을 표시하는)위치어 구(adpositional phrase)나 또는 단순히 격 형태로 시작 되었고 위치어(또는 격어미)는 이미 명백하게 문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정사에서 일어나는 것은 부정사를 표시하는 문법적 요소는 한층더 문법적이 되고 있고, 즉 한층더 문법화 되고 있다 하겠다.

Lehmann은 문법화의 6가지 매개 변항(parameter), 즉 3개의 계열적 매개 변항(paradigmatic parameter)과 3개의 통합적 매개 변항(syntagmatic parameter)을 구별하고 있다(1985:306).

독일어 부정사의 경우 계열성에 있어서 최종적인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매개 변항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대 고지 독일어에서

고대 부정사는 전치사 *in, mit, zu*와 아마도 다른 전치사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었다(Erdmann 1874:211). 중세 고지 독일어에 이르러서는 이 매개 변형은 하나의 전치사 *zu*로 축소되었고 이 형태는 더욱더 동사적 계열(verbal paradigm)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계열성(paradigmaticity)의 증가는 특별히 고대 인도어계의 언어에서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래된 베딕어의 문헌에서 대략 19개의 다른 부정사가 발견되고 있다(Disterheft 1980). 이것들은 동사적 명사 어간(verbal-noun stem)으로부터 그리고 다양한 격 속에서 형성되었다. 이들 중 단 하나만이 고전적 고대 인도어인 범어(Sanskrit)에 살아남아 있으며, 이것은 *-tu*-동사적 명사의 대격인 *-tum*-부정사이다.

결속력의 연장선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된 단계는 자유어 접어-어미(*free word clitic-affix*)이다. 고대영어에서, *to*는 아마도 자유어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모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영어에서, 비록 문어에서 어떤 부사구가 *to*와 동사 사이에 개재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to*는 아마도 후접어(*proclitic*)라 할 수 있다. 독일어에서 *zu*는 아마도 언제나 접어(*clitic*)로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 신 고지독일어(Early New High German)에 있어서는 이 *zu*는 동사와 함께 유착되었던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현대 독일어의 *zu*는, 비록 철자 상으로 보면 이것을 비 구속 요소로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아마도 구속 접두사로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zu geben*, "to give", 그러나 복합어(*compound*)인 *wegzugeben* "to give away"의 경우를 참조).

계열적 변수(*paradigmatic variability*)의 상실은 계열의 구성소 중의 선택이 문법 규칙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과 전체 범주가 급진적으로 강제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적절은 화자에게 *to, in order to*와 *so that*사이에서 선택한다든지 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절이라든지 또는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반면에 이러한 일이 많은 보어를 취하는 동사의 경우에는 가능하지 못하다. 일단 화자가 어떤 특별한 보어를 취하는 동사를 결정하면, 부정사의 결정은 의무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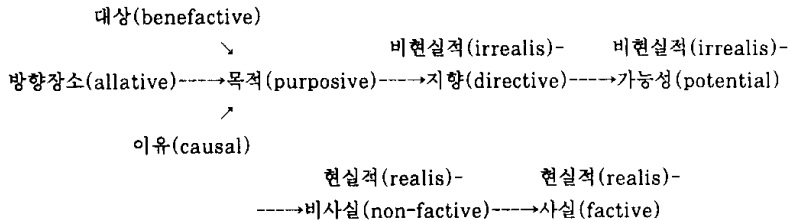
- (7) a. *Franz beabsichtigte, zu Sabina zu ziehen.*
 -- 'Franz intended to move in with Sabina'.
 b. **Franz beabsichtigte, dass er zu Sabina zöge.*
 c. **Franz beabsichtigte.*

통합적 변수(*syntagmatic variability*)는 매개 변형(*parameter*)의 통합적 관계에서 어떠한 요소가 변이될 수 있는 자유를 가리킨다. 이러한 관계는 부정

사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부정사는 고정된 구성 성분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전치사구의 형태) 문법적 구문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원래 모습(integrity)의 상실은 의미적 부문과 음운적 부문에서 엿볼 수 있다. 음운적 원래 상태의 상실은 일반적으로 부식(erosion)이라 불리워지며 문법화의 잘 알려진 속성이다. 이 속성은 문법적 형태소(grammatical morpheme)가 대체로 어휘 어간(lexical stem)보다 짧으며, 좀더 일반적으로 음운적으로는 어휘 어간보다 덜 명료한 것을 말한다. 계열적 변수의 상실과 마찬가지로 음운적 부식은 부정사의 경우에 보이기가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zi*라는 요소는 이미 아주 짧으며 이 과정의 초기에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사 전치사(infinitive preposition)의 부식은 영어에서 관찰할 수 있다. 고대영어에서 *to*는 (*tə*)로 변화하였다.

부정사 발전의 가장 흥미 있는 부문은 의미의 원래 모습의 상실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의미의 일반화(*semantic generalization, desemantization*)라 불리어진다. 원래의 목적 의미는 미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점진적으로 약화되었다. 이것은 다음 <도표 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도표 2 > 부정사의 의미적 문법화(*Semantic grammaticization of the infinitive*)

위 <도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법화의 길은 가장 구체적인 의미들인, 대상적, 방향 지시적, 이유적 의미로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부정사가 점차 목적적 의미로 바뀌고, 후에 보어절의 다양한 서법성(modalities)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서 보어절의 네 가지 서법성을 구별하고 있다. 즉, 비현실적-지향, 비현실적 가능성, 현실적 비사실, 현실적 사실이 그것이다. 보어절의 서법성의 의미는 매우 복잡하지만, 이런 정도의 구별로도 어느 정도 충분할 것이다.

비현실적 지향(irrealis-directive)은 'order', 'ask', 'cause' 와 같은 동사와 'desire', 'want', 'prefer' 와 같은 소망 동사(desiderative verb)에 대한 보어

의 서법성이다. 보어의 상황은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주어지며 그리고 이의 가능한 실현은 미래에 기대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현실적 지향이라고 하는 대신에 또한 비현실적 전망(irrealis-prospective)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비현실적 가능성(irrealis-potential)은 'be possible', 'be able', 'be necessary', 'have to'와 같은 서법적 서술어(modal predicate)와 'interesting', 'funny', 'regret', 등과 같은 서술어에 대한 보어의 서법성이다. 여기에서 상황은 역시 실현되지 않으며, 그러나 상황이 미래 어느때 실현되는 것이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잠재적으로 어느때가 일어나는 것으로 제시된다.

현실적 비사실(realis-non-factive)은 'think', 'believe', 'seem'과 같은 사고(thinking)동사와 'say', 'claim', 'report'와 같은 발화(utterance) 동사에 대한 보어의 서법성이다. 여기서 상황은 비록 화자는 상황의 진실성에 대해 언질을 주지 않는다 해도 현실적인 것으로 제시된다.

현실적 사실(realis-factive)은 'know', 'realize', 'find out'와 같은 인지(cognition)동사와 평가 서술어(evaluative predicate)와 같은 동사에 대한 보어의 서법성이다.¹⁾

이러한 서법의 의미는 아주 구체적인 원래 의미의 점진적인 약화를 보여주고 있는 목적 의미와는 매우 다르다. 비현실적 지향적 서법성(irrealis-directive modality)은 아직도 상당히 목적의 의미에 가깝다. 이 둘은 비 실현성과 기대되는 미래 시의 지시(reference)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보어를 취하는 동사의 어휘적 의미의 부분으로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목적적 요소는 비현실적 지향적 서법성에서 더 이상 직접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못하다. 비현실적 가능성의 의미는 이것이 지향적 그리고 전망적 부문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진전된 의미 퇴색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현실적 비사실적 서법성에 있어서는 원래의 비현실성의 부문은 비사실적 의미로 약화되어져 왔고, 현실적 사실적 서법성에 있어서는 원래의 목적의 의미는 그 최후의 흔적조차도 부재함을 볼 수 있다.

고대 고지 독일어에서 *zi*-부정사는 대부분 보어절에서 사용되는 경우 비현실적 지향적 서법성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 (8)의 예문은 희망적 동사와 함께 사용된 예이다.

1) 이러한 서술어(특히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다른 서법성을 갖고 사용될 수 있다. 비현실적 가능성의 경우를 *It is interesting to listen to her*에서 볼 수 있으며, 현실적 사실을 *It is interesting that she arrived so early*에서 볼 수 있다.

- (8) *zie gerotun al bi manne inan zi rinanne* they desired all by
man him to touch (Otfrid, II, 15, 7)
'All of them sought to touch him'

목적 형태가 발전하고 더욱더 문법화해 감에 따라, 비현실적 가능성의 서법성과 함께 보어절에서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부정사의 이러한 용법이 중세 고지 독일어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 (9) a. *es simet dem man ze lobene wol* (Tristan und Isolde, 13)
'It becomes the man well to praise.'
b. *da ist vil guot ze lebenne* (Behaghel 1924:343)
'There it is very good to live.'

(9a)는 서법동사의 보어로서 *ze* 와 함께 쓰인 부정사의 예이며, (9b)는 평가적 형용사와 함께 사용된 *ze*-부정사의 용법을 보여주고 있다.

사고 동사에서와 같이 현실적 서법성과 함께 사용되는 *ze*-부정사의 용법은 한 층 후에 나타나게 된다. 중세 고지 독일어에서 사고동사 중에 가장 중요한 *dünken*, 'think, seem'은 다음 (11)에 있어서와 같이 한정적 절 보어(finite clausal complement)를 취하고 있다.

- (10) *in dühte daz im al diu lant……wærn bekant* (Parzival 590, 7)
'He thought that all the lands were known to him.'

Paul(1920:§342) 에 의하면 동사 *dünken*은 후기 중세 고지 독일어, 대략 서기 1300 년 이래에서만 부정사와 사용되고 있다. 초기 신 고지 독일어(Early New High German)과 현대 독일어에서 부정사가 여기에서 사용되도록 허용하는 동사의 수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다음 (11)은 16세기 루터의 성서에서 인용한 것이다.

- (11) *von dem wird genommen auch des er meint zu haben*
'From him even that is taken which he thinks he has.'

사고 동사에 대한 보어절과 다른 현실적 보어는 부정의 시간 지시(indeterminate time reference)를 갖게 된다(Noonan 1985). 이것은 다른 말

로 말하면 이 보어절과 현실적 보어는 주어의 서술어와는 독립적으로 시제가 놓이게 된다. 이런 점에서 지금 부정사가 시간상 앞서는 시점을 표현하는 완료 부정사가 나타나게 된 것은 놀라울 것이 못된다. 다음 (12)는 현대 독일어에서의 예문이다.

- (12) *Franz bereut nicht, seine Familie verlassen zu haben.*
 'Franz does not regret having left his family.'

부정사가 분명한 시간 지시를 함축하고 있는 비현실적 서법성과 함께 다만 사용되는 한은 시간적으로 앞서는 관계를 표현하는 이러한 부정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Paul(1920:98)에 따르면, 이러한 완료부정사는 중세 고지 독일어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

현대 독일어에서 *zu*-부정사는 다음 (13)에서와 같이 *saying* 동사와 또한 결합할 수 있으며, (14)와 같이 가능하면 심지어는 현실적 사실적 서법성을 취하는 인지동사(verb of cognition)와도 결합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 (13) *Mutter versicherte, früh zu Hause sein zu wollen.*
 'Mother said that she wanted to be home early.'

- (14) a. ? *Sie stellte fest, in einer schwierigen Lage zu sein.*
 'She realized that she was in a difficult situation.'
 b. **Sie erfuhr, ihm nicht mehr helfen zu können.*
 'She learned that she could no longer help him.'²⁾

현실적 사실적 서법성(realis-factive modality)은 원래의 방향적-목적적 서법성(directional-purposive modality)의 탈 의미화(desemanticization)의 점진적 과정에서 극단의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원래의 의미와는 최고로 다르며 의미적 문법화는 이로인해 이 과정의 최종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일단 부정사가 탈 의미화의 이러한 단계에 이르면 동사의 최대의 무표화된 형태

2) 발화와 인지동사(verb of utterance and cognition)가 쉽게 *zu*-부정사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부정사는 그 고유의 서법적 의미에 관련되어 있다기 보다는 그 자신의 주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현실적 보어는 이것들이 부정(indeterminate)의 시간 지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그들 주어의 지시가 더욱더 독립적이라는 점에서 비현실적 보어보다 더욱더 독립적이다.

(unmarked form)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쉽게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문법화는 하나의 극단적인 경우이고 서법의 의미는 부정사의 보어 용법 중 많은 곳에서 아직도 명백한 구별이 가능하다.

V. 몇 가지 유사한 경우와 결과

부정사의 발전과 주격 표지의 발전과 흥미 있는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주격, 속격, 능격(ergative case)과 같은 문법적 격의 표지들은 도구(instrument), 수여(benefactive)와 다양한 장소 관계와 같은 미흡한 문법적 관여 역할을 하는 표지어의 문법화를 경유하여 나타나게 되었다. 좋은 예는 궁극적으로 방향 표지어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여격 표지어(dative marker)에 기원을 두고 있는 대격 표지어(accusative marker)이다. 부정사 표지어(infinitive marker)도 또한 방향 표지어(direction marker)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목적 표지어(purpose marker)로 출발하여 마침내 일반적인 문법적 질 논항, 즉 보어절을 표지 하는데 사용되게 되었다. 정확한 기제는 다양한 반면(부정사는 점차적으로 이것이 가지고 있던 특수한 화법성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유사성들은 아주 현저하다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유사성은 본동사의 문법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정사의 경우에 문법화의 과정을 겪는 것은 바로 종속 술어의 표식이다. 좀더 전형적으로 말하면 조동사로 문법화하고 바뀌는 것은 바로 본동사이다. 영어 역사에서 잘 알려진 한 가지는 *may*, *shall*, *must*, *will*과 같은 법 조동사(modal auxiliary)의 문법화이다. 이들 법 조동사의 원래의 의미는 예를 들면 *shall*이 'owe'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아주 꽤 구체적 이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의미들은 능력(ability), 책임(duty), 욕구(desire)와 같은 기본적인 법성의 의미(modality meaning)를 갖게 되었고, 이 후에 허락(permission), 의무(obligation), 의도(intention)와 같은 (윤리적)의무적 법성(deontic modality)과 가능성(possibility), 필요(necessity), 미래(future)와 같은 인식적 법성(epistemic modality)으로 발전하게 된다. 예를 들면 *will*의 경우 욕구(desire)라는 원래의 의미에서 예측(prediction)이라는 인식적 의미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본적 법성에서 인식적 법성으로의 의미상 발전의 똑 같은 경향은 주절 동사 또는 종속절 동사 중 어느 것이 문법화 하든지 두 경우에서 작용하고 있다.

목적 형태로부터 부정사의 발달이 하나의 문법화의 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문법화 과정의 특징인 일련의 더욱더 일반적인 속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로, 이 발달은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된다(unidirectional). 탈 문법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부정사가 덜 문법화 되어지는 어떠한 예도 찾아보기 힘들다.

둘째로,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발달의 결과로 문법화 되어진 항목들은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더 강화되어지거나 또는 새로워지는 경향이 있다(cf. Lehmann 1982:20-25). 어떤 한 항목의 의미가 상승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이것의 형태가 음운적 부식(phonological erosion)을 갖게 됨에 따라 이것은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좀더 덜 문법화 되어진 항목이 강화(reinforcement)의 과정으로 첨가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독일어 부정사의 역사 중에 두번 일어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첫 번째 강화는 원형 부정사가 부정사로서 명백하게 표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zi/zu*을 가지고 부정사의 표식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두 번째의 강화는 목적 기능을 위해 *um*을 첨가한 경우라 할 수 있다. 현대 독일어에서 단순 *zu*-부정사는 더 이상 목적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목적의 경우에 *um*이 필요하게 되었다.

- (15) *Er ging nach Amerika, * Arbeit zu finden.*
um Arbeit zu finden.

‘He went to America(in order to) find work.’

독일어 부정사의 미래의 발전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이 새로운 목적 형태는 다시 보어절로 확정될 것이고 우리가 보아온 *zu*-부정사의 발달과 같은 과정을 그 때에 다시 겪게 될 것이다. 어느 의미에서 이러한 예측은 이미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네덜란드어에서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네덜란드어의 이에 상응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정사 형태인 *om te* 부정사의 점진적인 확장은 1987년에 Gerritsen에 의해 설명되었다. *om te* 부정사는 현대 네덜란드어에서 목적절(16 참조)에서 뿐만 아니라 비사실적 범성(irrealis modality)으로 보어절에서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17 참조) 사실적 범성으로는 보어절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18 참조).

- (16) *Hij ging naar Amerika om beroemd te worden.*
‘He went to America in order to become famous.’

(17) *Jij probeerde (om) het hek to sluiten.*

'He tried to close the fence.'

(18) *Moeder zei (*om) vroeg thuis te zullen zijn.*

'Mother said she would be home early.'

네덜란드어의 *om to*-부정사의 용법은 그러므로 중세 고지독일어에서의 *ze*-부정사에 다소간 상응한다 볼 수 있다.

부정사가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고 최대로 무표화된 형태로서 간주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부정사가 높은 정도의 문법화의 결과로서 많은 언어에서 매우 일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만 이점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가 상대적으로 비어 있는 것은 부정사의 성격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 모든 문법화의 과정은 이의 논리적인 종착점으로서 영(*zero*)의 상태를 갖고 있다. 문법적 범주의 성격은 긴 문법화의 역사 후에 최후로 매듭을 짓는 최종적인 점이 아니라 이 범주가 발달되어 나온 원천의 견지로 부터 가장 잘 이해되어진다. 그러므로 부정사의 성격은 만약 이의 원래의 목적적 기능이 고려되어진다면 가장 잘 이해되어지는 것이다. 부정사의 의미에 첨가해서 한가지 중요한 구문적 속성이 이 원래의 기능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Noonan(1985:20)은 부정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verb-like that does not bear syntactic relations to its notional subject: i.e. its subject does not take nominative case marking or condition verb agreement(where otherwise appropriate for subjects), nor are they marked in the associative(genitive) case. The notional subjects of infinitives are typically equi-deleted..."

이러한 부정사의 속성은 의미적 보어 유형에 대한 부정사의 분포가 거의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는 형태적 구문 연구 분야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상적인 공주어(empty subject) PRO를 흔히 포함하는 여러 다른 이론들이 제안되고 있다. 현재의 견해에서 볼 때 부정사에서 명시적인 주어의 부재는 이 부정사의 원래의 목적적 기능으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목적절 주어의 지시는 대부분 예측이 가능하다(다른 말로 말하면 이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공지시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기주의적이고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행동하

기 때문이다. 다음 (19a)와 같은 현실적인 상황이 (19b)와 같은 상황보다는 단순히 더욱더 보편적이다.

- (19) a. *Tom bought a new bike to impress his girlfriend.*
 b. *Tom bought a new bike for the bike dealer to make more money.*

참 고 문 헌

- Curme, G. O.(1931). *Syntax*. Boston : Heath.
- Ebert, Robert Peter.(1976). *Infinitival Complementry Constructions in Early New High German*, Linguistische Arbeiten, 30.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 Bybee, Joan L. & Pagliuca, William.(1987). "The evolution of future meaning," *Papers from the VII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istorical Linguistics*, edited by A.G. Ramat, O. Carruba and G.Bernini. Amsterdam : John Benjamins, 109-122.
- Gippert, Jost.(1978). *Zur Syntax der Infinitivischen Bildungen in den indogermanischen Sprachen*. Frankfurt/Main : Peter Lang
- Jeffers, Robert J.(1975). "Remarks on the Indo-European infinitives", *Language* 51 : 133-148
- Lehmann, Christian.(1982). *Thoughts on grammaticalization*. A programmatic speech. Vol. 1 akup, 48. Köln : Institut für Sprachwissenschaft, Universität su Köln.
- _____.(1985)."Toward a typology of clause linkage", in *Clause Combining in Grammar and Discourse*, edited by John Haiman and Sandra A.Thompson. Amsterdam : Benjamins, 181-225.
- Erdmann, Oskar.(1874). *Untersuchungen überdie Syntax der Sprache Otfriids*. Halle.Reprint, Hildesheim, New York : Georg Olms Verlag, 1973.
- Disterheft, Dorothy.(1978). *The Syntactic Development of the Infinitive in Indo-European*. Columbus, Ohio : Slavica Publishers.

- Paul, Hermann.(1920). *Deutsche Grammatik*. Band IV : Syntax (Zweite Hälfte). 3. Auflage 1957, Halle (Saale): VEB Max Press.
- Leech, Geoffrey N.(1979). *Meaning and the English Verb*. London : Longman.
- Noonan, Michael.(1985). "Complementation", in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edited by Timothy Shopen. Vol. 2. Complex constructions: Cambir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Quirk, Randolph et al.(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 Longman.
- Zandvoort, R. W.(1969). *A Handbook of English Grammar*. London : Longman.